

세상을 향한 나의 어머니의

메시지와 나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전해 주어라

No. 26, Vol. 1

## 성지(聖地)

“어떤 곳은 聖母님의 現存이 특별히 생동감있게 느껴지는 곳이다. 이러한 地域에서 흐르는 빛의 힘은 멀리에까지 퍼져서 먼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온다. 그 빛은 교구를 넘어서, 나라를 넘어서, 때로는 여러나라 또는 대륙을 넘어서 흐른다. 聖母 聖地가 그런곳이다.”

1982. 5. 13 포르투칼 파티마, 교황 바오로2세

### 바실리카

성모님(1974. 12. 31) - “바실리카가 이 신성한 땅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. 인내하고 참아라. 그러면 너희는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다.”

### 기적

성모님 (1973. 5. 30) - “.... 많은 현시를 받을 것이다. 그후 나의 성자께서 이 성지에서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,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, 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, 창조주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.”

### 사제

베로니카(1972. 12. 24) - “나는 사제 한 분이 이곳에 온것을 알고있다. 성모님께서 오늘 저녁 이곳에 온 누군가에게 몹시 관심을 갖고 계신다. 그렇다. 성모님께서 웃으신다.”

### 암(癌)

성모님(1973. 10. 6) - “내가 지상에서 이 지역을 택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이다. 너희들의 이 도시는 오물구덩이와 같다. 마치 암과같이 악(惡)이 이곳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.”

### 기적의 물

성모님(1973. 3. 18) - “하느님께서 새 우신 이곳 성지는 앞으로 평화와 위로의

성지가 될 것이다. 이 곳에서 치유의 물이 샘솟을 것이다. 하느님의 손길이 이 장소에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.”

### 유예

성모님(1974. 10. 2) - “너희는 하느님께서 택하신 이 성지에서 너희 나라와 너희 주(州)를 지탱하는 천장을 들고 있는 것이다. 우리 자녀들이 이 곳에서 마음을 들어올려 바치는 많은 기도들로 인해서 너희는 지금 유예기간을 받고있다.”

### 널리 알려지다

성모님(1986. 9. 21) - “우리는 떠나지 않는다. 나의 성자와 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이 곳에 있을 것이다. 그리고 평일에 누군가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면, (절야기도 때이거나 성시간에 관계없이) 우리가 올것이다.....”

“그렇다. 나의 딸아. 이 성지는 널리 알려질 것이다. 이곳은 거룩한 땅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이며, 그리고 사람들은 베이사이드에있는 聖地라고들 할 것이다.”

### 성시간

성모님(1972. 9. 14) - “나는 주님의 날에, 이 성지에서 보속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. 이 시간은, 너희들의 교황을 위해서, 그리고 하느님의 집에 있는 타락한 성직자들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할 것

아래 내용들은 천국에서 주어진

방대한 양의 메시지에서 추린 것이다.  
이는 이 마지막 날들에 천국이 요구하는  
바이며, 천주교신자로서 갖추어야  
할 직관과 실천할 내용이다.

이다. 또 이 시간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외면한 것을 속죄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.”

### 오아시스

성모님(1973. 9. 13) - “나의 딸아.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성지에 오는 모든 사람들아.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. 이 聖地는 참으로 황무지에 있는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.”

### 봉헌

성모님(1974. 9. 7) - “나는 이 성지를 영혼 회복을 위한 장소로 봉헌할 것을 부탁하였다. 나는 하느님께서 이 聖務를 위임받은 그 사제가, 이 신성한 땅을 속죄의 중심지, 성지로 가꾸도록 부탁했었다.”

### 어머니들

성모님(1974. 8. 5) - “나의 자녀들아,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여라. 나는 이곳을 찾아온 모두가 이 신성한 땅에와서 은총을 받을수 있도록 나의 망 또는 그들 위에 펼친다.”

### 가정

예수님(1991. 6. 18) - “나의 자녀들아.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.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가정을 만들었다. 그러므로, 위로를 받기위해서 오는 너희들 모두에게

마리无助神社  
MARY HELP OF MOTHERS SHRINE  
11361 (718) 961-8865, 24 hours  
국립총부 207 Tel 02-419-5454

OUR LADY OF THE ROSES  
P.O. Box 52, Bayside, NY  
01041-0521 美國郵局 84-7

한국언어학회(1975. 5. 18) - 「한글을 읽는 학제적」

七

10

1974. 3. 18) - "451호", 『한국의 451호』, 1974년 3월 18일자, 1면  
1974. 3. 18) - "451호", 『한국의 451호』, 1974년 3월 18일자, 1면  
1974. 3. 18) - "451호", 『한국의 451호』, 1974년 3월 18일자, 1면  
1974. 3. 18) - "451호", 『한국의 451호』, 1974년 3월 18일자, 1면

四

봉기

四

한국의 문화재로 등록된 유적과 유물은 1970년대에 걸쳐 100여 건이나 되며,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고구려의 고성과 고분군이다.

卷之三

한국어로 된 책입니다.

四

제작자: 김민수  
제작일: 2023-05-15  
제작장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
제작설명: 이 작품은 2023년 5월 15일에 제작되었습니다. 제작자는 김민수입니다. 제작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입니다.

151

제 10 국립 박물관 허수암 풍류도

卷之二

1973. 4. 14)-מִלְחָמָה על יטה.  
1973. 4. 14)-מִלְחָמָה על יטה.

五

詩言

ପାଇବୁଛି ।

말한다. 우리가 여기에 있다. 큰 채양이  
탁칠때까지도 나의 어머니와 나는 여기  
에 있을것이다.

### 루시아

성모님(1986. 6. 18) - "나의 자녀들아,  
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. 로마  
의 교황을 찾아가거나, 편지문쓰거나 해  
서, 그에게 간청하여라. 무시아가 앞으  
로 나와서 파티마의 제 3비밀을 자세하  
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여라.  
내가 Bayside의 Flushing Meadow에  
발현할 때마다 부탁하지 않았느냐.

### 징벌

성모님(1973. 4. 14) - "만일 이 곳에  
서 속죄의 기도가 계속되지 않는다면,  
징벌의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."

### 사진들

성모님(1975. 11. 1) - "나의 딸아. 나는  
여기서 사진찍는 일이나 관심을 갖고,  
그것이 이 성지의 매력인것처럼 되는것  
을 원치 않는다. 이곳은 철야기도와 목  
상의 장소이어야 한다. 왼쪽으로 몹시  
기울어진 천칭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 
많은 기도가 필요하다. 나의 딸아. 이성  
지는 속죄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."

### 현시

소화 테레사 성녀(1973. 2. 1) - "성모  
님의 현존으로 거룩해진 이 성지에서,  
영혼들의 구령을 위해서. 천주의 모친 마  
리아의 중재를 통해서. 하느님께서 선택  
하신 자들에게 많은 현시가 주어질 것입  
니다."

### 변화

성모님(1975. 5. 18) - "지금은 약간의  
변화 필요한 때이다. 이곳에 참여하는  
신자들의 수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 
넘어서고 있다. 그러므로. 너는 주교에  
게 말해야 한다.: 당신은 하느님으로부

터 징표를 받으실 겁니다.' 그는 이 징  
표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.....  
"너희 주교에게 준 징표로 이곳에서 바  
실리카가 세워질 때까지. 세계 도처에서  
사람들이 끊임없이 온 것이다. 기도가  
끊기지 않도록 해야한다."

"경찰서의 제안을 받아들여라. 나머지  
는 내가 하겠다. 나의 딸아. 모든 것에는  
다 때가있다. 조그마한 변화 조차도 그  
렇다.....  
임시나마 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 
곳에서 속죄의 기도가 계속되도록 하여  
라. 그 성지를 방치한다고 해서 공경이  
줄어드는 일은 없을것이다."

### 치유

성모님(1994. 2. 1) - "나의딸아. 이 축  
성된 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온총을  
풍성하게 받을것이다: 치유와 개종(회  
개)의 온총. 절름 밤이가 걷고. 눈먼 이  
가 볼 수있게 된것이다. 어두움속에 있  
는 자들이 빛 속으로 나온것이다."

### 불리움

예수님(1983. 6. 18) - "이 성지에 오게  
된 이들 모두는 이유없이 온것이 아니  
다.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 
있으시며. 여기에 온 모두는 성부께서  
부르신 것이다."

### 낙태

성모님(1974. 3. 18) - "나의딸아. 성부  
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셔서. 이곳을  
보속의 중심지로 택하신 가장 큰 이유를  
말해주겠다. 그것은 낙태 때문이다."

### 장미들

성모님(1970. 10. 6) - "내가 선택한 이  
로사리오의 성지란 모든 사람들에게 알  
려라. 이 지역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든  
것은 우연이 아니며. 성부의 계획에 따  
른 것이다."

성모님(1973. 6. 8) - "나의 딸아. 기억  
하여라. 나는 이 성지에 온 모두에게 사  
탄으로부터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구할  
수 있는 힘을 부어줄 것이다."

OUR LADY OF THE ROSES MARY HELP OF MOTHERS SHRINE  
P.O. Box 52. Bayside, NY 11361 (718)961-8865. 24 hours

어머니원의 도움이신 로사리오의 성모회

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-7 안흥B/D 207 Tel 02-419-5450